

오순절 후 열네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4<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9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통일40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7 번 시편 91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14:1-18</b>	장경국 집사
찬 양 Anthem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대
설 교 Sermon	<b>“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The Lord Will Fight for You)</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통일34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무기력해졌으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개역개정 **출14:13-14**)

“Moses answered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NIV **Exodus 14:13-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1 (주일)	9/12 (월)	9/13 (화)	9/14 (수)	9/15 (목)	9/16 (금)	9/17 (토)
	삼하6	삼하7	삼하8,9	삼하10	삼하11	삼하12	삼하13
본문	고전16	고후1	고후2	고후3	고후4	고후5	고후6
	겔14	겔15	겔16	겔17	겔18	겔19	겔20
	시55	시56,57	시58,59	시60,61	시62,63	시64,65	시66,67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14수 오후7:30)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단211-15)
토요 새벽기도회 (9/17토 오전6:30)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시94:14-23)

지난 주일(9/4)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5)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출 13:1-16)

구약에는 613개나 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사(희생 제사)와 연관된 율법 조항의 숫자가 (무려) 150개나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희생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를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도)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한 무엇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는 말씀은 1)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의미로서, 이는 희생 제사 (Sacrifice)를 뜻하는 히브리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코르반”은 “가까이 가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다”는 뜻이 우선입니다. 즉, 제사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둘째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의미로서, 이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가령,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등이 다 포함됩니다. 마지막 3)셋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로서, 이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만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심으로 인해, 세상을 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